둘레길 산악오토바이·자전거 진입 해법없나

내달 10일부터 숲길 내 차마 진입 금지 개정안 시행
제주도 "여러 상황 면밀 검토 금지구간 등 고시 예정"

숲길의 일부나 전부에서 산악 오토바이·자전거 진입을 금지하는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행자들은 산악 자전거 등이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산림을 훼손하고 있어 이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산악자전거 동호회원들은 산림을 훼손하는 일부 이용객들 때문에 산악 자전거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맞서고 있다.

1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10일부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숲길 보행자의 안전 등을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산악 오토바이·자전거의 진입이 금지된다.

법률 개정 이전까진 깊은 산림까지 산악자전거 등을 타고 다니면서 등산객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경관을 훼손한다는 민원이 제기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관리하는 등산로나 둘레길 구간을 정해 산악자전거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한라산둘레길을 걷는 보행자들은 숲길에서 산악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왔다.

한라산 둘레길을 자주 걷는다는 김만수(60)씨는 "폭이 좁은 등산로에까지 산악자전거가 지나가면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고, 특히 산악오토바이가 한 번 지나가면 땅이 움푹 패이면서 탐방로가 망가지고 자연 경관을 해치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산악자전거 동호회는 일부 산길 깊숙한 곳까지 산악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는 이들 때문에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산악자전거 동호회원 김모(45)씨는 "나무가 많은 곳이나 계곡 근처엔 최대한 가지 않고, 차량이 다니는 임도만을 이용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돼도 산악자전거 진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 보단 일부 구간을 정해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악오토바이·자전거 진입 금지 관련 내용으로 한라산 둘레길에 설치됐던 현수막. 강다혜기자

이에 법 시행을 앞두고 한라산 둘레길을 조성·관리하는 (사)한라산둘레길은 계도를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한라산 둘레길 진입로 일부 구간에 설치했다.

하지만 제주도 측은 아직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거나 제주도의 고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둘레길 측에 현수막 철거를 요구해 현재 현수막은 철거되고 있다.

(사)한라산둘레길 관계자는 "둘레길은 차마가 다닐 수 있는 길보단 흙길이나 폭이 좁은 길이 많아 산악자전거 등이 보행자에게 위협이 된다는 민원이 이어져 현수막을 설치했던 것"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둘레길에서 산악자전거 등을 제재할 수 있도록 제주도 측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행자와 산악자전거 이용객 등 탐방객들의 목소리와 여러가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진입 금지 구간 등에 대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코로나·고객 갑질·직장 내 괴롭힘 3중고"

카지노 노동자들 국회서 회견

제주신화월드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위험과 고객 갑질, 직장 내 성희롱 등 '3중고'를 겪고 있다고 폭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관광서비스노동조합·제주도 신화월드 LEK지부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카지노 감정노동들의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제주도 카지노들은 코로나19 위기에도 객장 내부 흡연을 허용했으며, 폭언·폭행·성희롱 등을 포함한 고객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그럼에도 사측은 예방 조치 및 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비단 제주신화월드 카지노에 종사 중인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카지노 업계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고용노동부와 문화관광부는 제주신화월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 법률 위반 실태에 대해 신속한 행정조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다혜기자

"민간기업 도시가스 지원정책 중단하라"

LPG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제주도 가스판매업 협동조합·한국LPG산업협회 제주협회 등으로 구성된 'LPG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제주도를 상대로 LPG판매업 영세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제주도시가스 지원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제주도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 정책은 혈세 낭비이며, LPG 판매자의 공급권을 빼앗아 민간기업인 제주도시가스사에 넘기는 정책일 뿐"이라며 "제주도시가스 지원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제주도에 대해 LPG 판매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소상공인 LPG 업계에 동등한 예산지원 정책 마련, LPG 총량제 정책 마련, LPG와 도시가스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등을 요구했다. 강다혜기자

LPG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LPG판매업 영세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강다혜기자

이틀새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방역 '비상'

제주 61·62확진자 함께 방문
61번 입도전 관련 증상 진술
또다른 확진자 제주 다녀가

제주지역에서 이틀새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최근 경기도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코로나19 확진 전 제주도를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후 제주지역 62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제주 62번 확진자 A씨는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61번 확진자 B씨와 함께 입도한 수도권 거주자이다.

A씨는 제주 61번의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 11일 오후 7시 20분쯤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채취 후 접촉자 격리시설로 이송된 뒤, 다음날인 12일 오후 3시 45분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 방역당국은 A씨가 방문한 방문지 및 접촉자에 대해 역학조사에 착수하고, A씨와 관련한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제주를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61번 확진자 B씨는 입도 전부터 코로나19 관련 유사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61번 확진자 B씨가 입도전부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10일 제주에 입도해 하루 동안 제주 관광을 했으며 두통과 발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심해지자 지난 11일 제주 중앙병원을 방문해 검체 검사를 받았다.

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B씨가 코로나19와 관련 유사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현재 B씨의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도는 12일 오후 경기도 지역 확진자 C씨의 제주 방문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역학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 소재 관할 보건소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1일 검체를 채취,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A씨로부터 역학조사 범위 내의 정확한 제주 체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확진자의 역학조사가 완료되면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에 따라 이동동선을 목록 형태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장애인 폭행한 복지사 집유

장애인시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입소 장애인을 여러차례 폭행한 사회복지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입소한 지적장애 3급의 10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벽으로 밀쳐 부딪치게 하는 지난해 5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보호해야 할 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해정도가 매우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문미숙기자

"제2공항 여론조사 중단하라"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 집회

제주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는 12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의 전도민 대상 여론조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단체는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 다수 여론이 '반대'로 도출돼 제2공항 건설이 무산된다면, 성산읍민과 토지주의 재산 피해 대책은 마련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열린 끝장토론에서 현 공항 확충은 안된다는 결론이 났는데, 그것을 배제해 도민에게 거짓 정보로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만약 현 공항을 확충한다면 용담동과 도두동 등 지역 피해 주민과 새롭게 피해 지역으로 형성되는 노형동, 연동 등 신제주권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은 강구됐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도의회 갈등해소특위가 갈등 해소란 미명 아래 여론조사를 강행한다면 제2의 강정 사태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제2공항 건설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다혜기자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페르카 효과
높은 저장성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코코리 입상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Cocoly Powerful 용량 : 20kg
NAVER Dau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키위농가에 희소식
21세기 최첨단 비료 희토류가 들어있는 → "이노페스"탄생
이노페스: 풍미개선, 뿌리발달, 당도 향상, 신진대사 촉진, 내병성 강화, 생산성 증대, 광합성 촉진

이노페스 성분

원 료 명	효 과
희 토 류	염류중화 · 토양개량 · 천연항균 작용
식이유황(MSM)	천연항균 작용
부 식 산	유기물 대체 · 토양개량
벤토나이트	토양개량
고삼 · 백합추출물	토양해충기피
아미노산	천연질소질 공급
미량요소(Mg, B, Mo, Cu, Fe,Mn, Zn)	필수 미량요소 공급

특 징
☆가스피해가 없다 ☆항균작용으로 토양이끼 억제
☆염류중화 작용으로 뿌리생육 발달로 역병예방
☆시비가 간편하며 시간과 인건비 절약 ☆희토류 첨가로 작물의 기작 조절

사용방법
키위 = 1,000평 기준 20~25포(포당 15Kg)
※다른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산처 (주)포트라 판매처 농협 · 감협
공급처 (주)포트라 제주지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